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제2주일

제34권 54호(나해) 2014년 12월7일

[묵상]

근본적인 변화(회개).

첫째, 하느님과 관계의

근본적 변화

하느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회심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어떠했던 지금부터는 하느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됩니다.(갈라 2,20)”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웃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웃을 그저 타인으로만 생각하여 오지는 않았는지,

그와 나의 관계는 종속적이거나

지배적이지는 않았는지,

거짓되고 위선적이었던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안에서,

인간화, 형제화, 동료화, 수평화 하도록 우리를 일으킨다.

이제 그는 나에게 타인으로 남지 않게 된다.

이제 그는 내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존재로 남지 않게 된다.

셋째, 자신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 변화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를 갖게 된다.

자신의 불만스러운 모습에 대한 불인정과,

어떤 종류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었고,

자신이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알게 된다.

회개한 자는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다.

자신의 존재 의미와 이유를 이제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새로운 자기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회개를 하고자 한다.

더 이상 이전까지의 나로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다.

더 이상 이전까지의 나의 어리석음에 머물고 싶지 않다.

이것이 "회개와 하느님 나라"의 의미이다.

- 오-

petrus3@hanmail.net



<너희는 주님의길을 굳게 내어라>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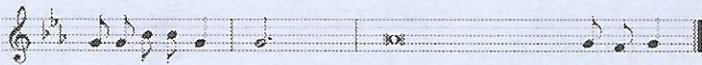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용식베드로, 이석진 가브리엘
	(생)김영덕 다니엘 & 박현주 카타리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송근섭 발렌티노, 박무성,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옥순 소피아, 반순례 안나, 이종갑 부르노, 김복남 마리아 & 김차옥요셉, 도나 애드워드, 이석진 가브리엘,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서성용 베드로, 변혜경 올리안나, 김기준 안젤라, 박세준 요셉, 박홍룡 요셉, 장영진 안토니오, 안진영 릴리엔, 민원희 안나, 김현오 니콜라스, 엄세중 그레고리오 & 엄영숙 마리아, 오마우라수녀,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Isaiah)40,1-5,9-11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
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
서 굽어보리라.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
가시리라. ◎

제 2독서 베드로 2서(Peter)3,8-14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마르코(Mark) 1,1-8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
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33	130	130
봉헌	431	268	272
성체	352	308	289
파견	123	125	132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3. 성령에 관한 새로운 이해

2) 성령에 관한 새로운 각성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령에 관해 새롭게 각성하면
서, 그분께 의지해서 교회를 쇄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의회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증대되는 가
운데 ‘성령쇄신운동’ 이 일어나게 되었다. 신자들은 기도 중에
성령의 오심을 청하였고,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
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 빈번하였던 예언,
이상한 언어, 치유의 은사까지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
작된 ‘성령쇄신운동’ 은 성령 안에서의 쇄신이라는 의미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쇄신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성령쇄신운동’

가톨릭 교회에서 ‘성령쇄신운동’ 이 시작되기에 앞서 프로테스
탄트에서는 ‘오순절 운동’ 이 일어났다.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 토페의 벤엘 성서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던 중,
이 학교의 설립자인 찰스 팔함 목사의 안수를 받은 한 여학생
이 이상한 언어를말하였고 급기야 모두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
게 되었다. 이 사건이 있는 후 팔함 목사는 그 여학생 등과 함
께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돌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다. 이
렇게 해서 ‘오순절 운동’ 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많
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교회의 성령쇄신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은 1967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
버그에 있는 듀케인 대학교에서 몇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학에서나 교회 내에서 종교적
열성이 차차 식어가는 상황에 직면해서 참다운 교회 쇄신은
새로운 성령 강림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로 서간과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의 일부는 매일 ‘성령
송가’ 를 바쳤다. 그러던 중에 이들은 피정에서 이상한 언어 등
의 성령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형성된 기도 단체
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고, 점차 독일과 오스트리
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이 운동에 속한 단체들이 형성되었다. 이
들은 오래지 않아 이 모임을 ‘성령쇄신운동’ 또는 ‘가톨릭 성령
단체 쇄신 운동’ 이라고 명명했다.

1967년 미국에서 첫 전국 대회가 열린 이래 1974년에는 노트
르담 대학교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35개국에서
온 수십 명의 주교들과 약 600명의 사제들을 포함하여
2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계속>

부담되는 연말정산, 성탄 판공성사!

성탄을 위한 준비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벌써 대림 두 번째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보내다 보면 올해도 그냥 성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림 제2주간의 성탄 준비물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다고 말하는데, 사제인 저도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해성사를 잘해야 성체성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제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저지르면 마음이나 생각이 무겁고 어두워지게 되어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되고, 이어서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듣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판공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고해성사로 성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유형을 나뉘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는 게 죄지요, 신부님이 알아서 사해 주세요.”유형입니다. 죄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유형입니다. 고해성사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찰-통회-정개(결심)-고백-보속’입니다. 결국 성찰한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찰한 죄를 고백하고 보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이 제일 중요한데 제대로 성찰을 하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은 “이건 아니잖아!” 겠죠?

두 번째 유형은 “네 탓이요!” 유형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인 판공성사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고백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늘어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 제발 자신이 지은 죄만 짧게 고백해 주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도 지치고, 조그맣고 답답한 고해소에서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도 지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민상담” 유형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고해를 다하고 나서 한 가지만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에 살이 자꾸만 붙어서 고해를 한 것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판공성사 시기에는 피해주는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고해소에 들어와서는 머리가 하얗게 될 수도 있으니, 성찰한 종이를 고해소에 들고 와서 읽으셔도 됩니다.

고해성사는 내가 지은 죄를 간단명료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고해성사로 깨끗한 자리에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하는 더없이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지형 신부 / 서울병원 원목사제

말이 만든 굴절

여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한 도시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도시의 지금을 말하기 보다는

내가 느낀 도시를 말하게 되더군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에 대해 말한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전해들은 말로 사람을 본다는 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지.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12월7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짜장밥 (10,11학년)
- 12월14일(주일) * 토남 3반 : 짜장밥 (\$3)
*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 (2학년)

- 4 -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Americ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모여라! 함께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주제 : "Joy of the Gospel"
- 장소 : Servite High School (애나하임)
- 대상 : 8학년 ~12학년
- 일시 : 2015년 1월 3일(토) 8:30am~7:30pm
- 참가비 : \$30 (by12/ 21, \$40 after)
- 참가신청 : 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72-3995 (Ext.106)

*점심식사와 기념셔츠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성당 연말선물용 이나시오 커피판매

- 가격 : \$10, \$20, \$50
- 주문 : 카페방문, 전화, E메일
- 수익금은 컴퓨터조성, 나눔실천, 성당전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이나시오카페 ☎(323)731-4433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8학기

- 일시 : 1월9일(금) 저녁 7시~10시
1월10일(토) 저녁 7시~10시
1월11일(주일) 낮2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관
- 강사 : 송봉호 토마스신부
- 수강료 : \$50 (\$20/1일)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12월 9일 : 평화의모후성당
- 12월 10일 : 순교자성당
- 12월11일 : 성마태오성당
- 12월12일 : 성아그네스성당
- 12월15일 : 성토마스성당
- 12월16일 : 성바실성당
- 12월18일 : 성프란치스코성당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991-4838 12/12(금)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민수 바오로 986-1890 12/2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2(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13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형상 요셉 991-8556 12/13(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이금순 카타리나 424-230-1146 12/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근 바오로 625-3312 1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2/12(금) 오전11시 강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3(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2/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13(토) 오후 7시 합기도장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213-700-6983 12/12(금) 7시 Lampost Pizza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2/13 (토) 오후 6시30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3(금) 오후7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617-3568 12/16(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14 > 강완숙 골롬바(1761~1801년)

1761년 충청남도 내포의 양반 집안에서 서녀(庶女)로 태어난 강완숙 골롬바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강완숙은 어느 사람과 달리 강건하고 정직하여 도리가 아닌 일에는 물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여 남장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완숙은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성한 강완숙은 덕산 지방에 살던 홍지영의 후처로 들어가 시어머니, 전처의 아들 홍필주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시집살이가 너무 고된 나머지 머리깎고 출가할 생각까지 하던 그녀는, 남편의 친척 바오로라는 사람에게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천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종교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올바르니, 그 도리가 반드시 참될 것’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강완숙은 즉시 천주교에 관한 책을 얻어다 읽으며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완숙이 보인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극기를 통한 계명 실천은 누구나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훗날 강완숙의 영향으로 세례를 받고 용감히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아들 홍필주 필립보의 예는 강완숙의 모범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1791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강완숙은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신자들을 보살피다 붙잡혀 홍주의 지방 관리에게 끌려갔습니다. 당시는 강완숙이 세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남편 홍지영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청 감영에서는 홍지영에게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었고, 이후 홍지영은 첩을 얻어 따로 생활했습니다. 한양의 신자들이 교리에 밝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강완숙은 시어머니와 아들 홍필주와 의논한 뒤 함께 한양으로 이사 하였습니다. 강완숙은 성직자 영입 운동에도 참여하여 주문모 신부를 모셔 오는 데 필요한 경비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1794년 딸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여 한양에 도착하였을 때, 강완숙은 ‘골롬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완숙의 인품을 대변에 알아차린 주문모 신부는 그녀를 조선교회 최초의 여회장으로 임명하여 신자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1795년 을묘박해 때 강완숙 골롬바는 자신의 집을 주문모 신부의 피신처로 내놓았습니다. 여성이 주인으로 있는 양반 집은 관헌이 들어가 수색할 수 없다는 조선 사회의 풍습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주신부의 안전을 위해 자주 이사를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 집은 신자들의 집회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윤점혜 아가다가 동정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곳도 강완숙의 집이었습니다. 강완숙은 지식과 재치를 겸비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입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체 높은 양반 부녀자들도 있었고, 과부, 머슴, 하녀도 있었습니다. 왕실 친척인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주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도 강완숙의 덕택이었습니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강완숙은 그동안의 활동들 때문

에 곧바로 관청에 고발되었고, 4월6일 집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같이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주신부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은 강완숙에게서 주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여섯 차례나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신앙심은 형리들조차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神)이다.”라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강완숙은 신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함께 갇혀있는 동료들을 권면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사형판결을 받고 1801년 7월2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형조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죄목을 붙였습니다. “강완숙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파하였고, 6년 동안 주문모를 숨겨 주면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이에 대해 강완숙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곧 천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역음

♥ 사랑하니까 ♥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일곱 살 난 아들과 다섯 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말이야?”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따뜻한이야기 / 박춘식]